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첫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가를 통해서이다. 둘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하고 가르치며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셋째 분별 방법은 나타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르는지, 미혹의 영을 따르는지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6, 20)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갈 5:22-23), 아니면 육체에 속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갈 5:19-21) 나타난 열매들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다.

끝으로,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통해서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의 일로 알고 행동한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단이 원래 그렇게 타락하였듯이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 사단도 그렇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말세에 큰 바벨론 성에 속한 자들 역시 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고자 사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결단코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다. 헤롯대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왕의 연설을 들은 아침꾼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추켜세우니깐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하찮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행 12:23).

따라서 교회 안에서 종종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또한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눈이 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도 못 느끼고 회개함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 이름과 명예와 권력과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도 구분 못하는 처지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취하는 일에 미혹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조심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할 고백은 누가복음 17:10의 말씀뿐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다. 당신 혼자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비참하고 처절하며 하나도 기쁨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무리 지금이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또한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보고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